

##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타난 기독교 비평장(場) 연구 : 복음서 재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안승범(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연구교수)

### 논문초록

본고는 2000년대 국내 개봉한 두 편의 '예수-이야기' 영화를 둘러싼 기독교계 평자들의 비평장을 분석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영화 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유력한 교계 단체와 상당수의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은 '복음서 재현 영화'이고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다양한 형태의 상영 저지 운동에 시달린 '복음서 변용 영화'다. 주목할 것은, 현실 층위에서 두 영화에 대해 행해진 다소 일방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많은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공론화의 장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영화 매체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비기독교인들과 영화를 도구로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독해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예수-이야기' 영화를 바라보는 교회의 편협한 관점과 극단적인 실천에 대해 자기반성의 시선을 보여주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상당수의 글들은 문화적 텍스트로서 '예수-이야기' 영화가 성서의 영화로의 확장, 혹은 복음서 내용의 실증적 각색일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영화 매체 자체의 미적 자율성을 인지하고 '예수-이야기' 영화를 예술적·역사적·문화적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접근해 가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축자영감의 영화적 적용을 강제하는 듯한 근본주의적 태도나 영화를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기독교 영화의 범주를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예수-이야기' 영화를 포함한 기독교 영화가 비기독교인들과의 대화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 때, 영화의 복음적 효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기독교계 비평은 복음서 재현에의 강요를 서서히 지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영화의 역할과 기능을 쇠신해 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입장 차를 지닌 교계 안팎의 평자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비평 공간이 늘어갈 기대한다.

**주제어:** '예수-이야기' 영화, 복음서 재현 영화, 복음서 변용 영화, 축자영감설, 비평장

## 1. 서론

성서에 등장하는 극적 사건들은 기독교<sup>1)</sup> 전파 경로를 따라 예술 소재로 활발히 차용되어 왔다.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기독교가 명실상부한 ‘세계종교’가 된 오늘날에는, 성서 내용의 예술적 구현이 더욱 보편화·지역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파급력있는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역시 성서 안에서 ‘재현’과 ‘상상’의 원천 소스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화사 초창기부터 가장 흔한 예술적 영감이자 소재가 되었다. 사실상 ‘예수-이야기(Jesus-story)’ 영화<sup>2)</sup>는 영화의 상품적 가치를 일찌감치 깨달은 제작자, 더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를 찾던 교회와 복음주의자, 영상의 시각적 호소력에 매료된 대중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만하다.

실례로, 최초의 영화로 회자되는 뤼미에르(Lumiere)의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e) <기차의 도착(The arrival of a train)>(1895)이 상영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춘 <수난(La Passion)>과 <호리츠의 그리스도 수난극(The Horitz Passion Play)>(1897)이 등장하기까지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그 이듬해 뉴욕에서 상영된 <오버아머가우의 그리스도 수난극(Passion Play of Oberrammergau)>을 포함하여 190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다룬 ‘수난극’ 관련 영화만 해도 여섯 편이나 제작된다. 그로부터 현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를 수치화하면 최소 100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이처럼 성서의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간접적으로 형상화한 영화만 하더라도 정확한 목록화가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그런데 이들 영화 중 일부는, 그것의 제작·배급·유통·소비 전과정에 걸쳐 사뭇 진지한 논쟁거리를 제공해 왔다.<sup>4)</sup> 단

1) 본고에서 ‘기독교’란 용어는 개신교를 일컫는다.

2) 일반적으로 예수 관련 영화는 ‘예수-이야기’ 영화와 ‘그리스도-유형’ 영화로 나뉜다. 전자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대개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배경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후자는 인물, 사건,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하지만 직접 서술하지는 않는) 세부적 상황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최근 시대를 이야기한다(Barnes Tatum, 2004: 8).

3) 작품 수와 작품명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책들 참고(Barnes Tatum, 2004: 18-24; 서보명, 2002: 234; 정혁현, 2006: 257).

4) 김윤지는 “예수영화가 수용자들에게 엔터테인먼트 혹은 예술적 의미에서의 영화로 인식되지 않고

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의 제작은 상업적 욕망과 종교적 열망의 절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영화의 사회적 논란은 상업적 욕망과 종교적 열망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사회 구성원의 의식 체계와 문화적 환경에 기독교의 가치가 녹아있는 서구 사회는, 그러한 논쟁의 반복을 통해 기독교와 영화의 관계를 성찰해 왔다.

한국의 상황에 국한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 특히 그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조명한 영화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하곤 했다. 그 원인을 기독교계 내부에서 찾아 보면, 먼저 한국 기독교가 청교도주의를 생활 실천의 차원에서 엄격히 적용하는 편인데다가 축자영감설<sup>5)</sup>에 기초한 성서 문자주의를 영상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계의 일부 유력 단체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의 상영 과정 자체에 실질적인 힘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해당 영화의 제작사 및 배급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잠재적 관객들은 자유로운 관람을 방해받은 데 따른 감정적 대응을 보이곤 했다.

물론 기독교 외부의 비평 집단 역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소홀한 면이 있다. 2000년대의 상황 속에서 논의하자면, 인터넷이 점차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해가면서 대중비평(Mass Criticism) 시대가 가속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6)</sup> 대중이 주도하는 비평문화의 확산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잡힌 비평적 대화보다도 호오판단에 의거한 공격적인 인상비평이 점증하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대중비평 시대에 관한 우려스러운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감한 종교적 소재 영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합리적인 토론이

---

마치 종교 텍스트와 같은 권위를 누려왔던 이유로 영화에 대한 어떤 식의 비판도 용인되지 않았다.”(김윤지, 2007: 49)고 주장한 바 있으나 기독교의 교리에 충족되는 영화일지라도, 민감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단적으로 <벤허(Ben-Hur)>(1959) 조차도 반유대주의, 반셈주의 영화로 비판을 받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Barnes Tatum, 2004: 30-31).

5) 축자영감설(verbal inspiration)은 성서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바탕을 둔다. 성서 속 사건과 내용 모두를 역사적 사실, 혹은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다.

6) 국내 영화평론계는 2000년대 들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 왔다.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린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심포지움에서도 ‘대중비평 시대’를 건너는 전문 비평가 집단의 자세에 대한 토론이 심도있게 벌어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정제된 글은 다음 평문 참고(심영섭, 2010: 62-86).

벌어질 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계가 대중 주도의 비평장(場)에 형성된 ‘호오’ 양측의 대결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들에 관한 평가는 종교적 신념의 소유 여부와 개인적인 ‘호오’에 따라 엄정성을 잃기 쉽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대 이후 기독교계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쓰는 전문적인 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고는 2000년대 기독교계 평자들이 형성한 비평장<sup>7)</sup> 내 목소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해 보고, 그로부터 ‘예수-이야기’ 영화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 개봉 시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던 <예수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이하 ‘유혹’)과 2004년 개봉 시 대체로 지지와 찬사를 받으며 교회와 성당의 선교 도구로 선전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이하 ‘패션’)를 대상 텍스트로 삼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들에 관한 연구는 영화 텍스트 분석이 다수였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당시의 쟁점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비평장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연구는 기독교 영화 혹은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신학적 조명에 치중했고<sup>8)</sup>, 개별 영화의 텍스트 비평이 짧은 평문 형식으로 시도되는 정도였다.<sup>9)</sup> 그러한 글들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 편의 대상 텍스트에 대해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이 행한 비평문을 지면의 종교적 성격과 관련없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비평적 활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7) 기독교 영화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비평장도 일반 영화 비평장과 마찬가지로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단비평과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의 평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장비평으로 나눌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전문 잡지 및 학술지(예: 『복음과 상황』, 『기독교 사상』, 『빛과 소금』, 『성경과 신학』, 『신앙과 학문』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비평과 기독교적 관점이 의무화되지 않는 지면(예: 『씨네21』, 『스크린』, 『무비위크』, 『영화평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비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자의 신앙 소유 여부를 떠나면, 기독교적 성격이 분명한 잡지 및 학술지에 실린 비기독교인들의 평문 및 논문까지 기독교계 비평장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기독교 저널 등에서 전문 영화비평가를 생산하는 시스템, 곧 등단 절차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8) 필자가 찾은 기독교계 학위논문은 4편이다(정경수, 2003; 이미향, 2004; 황하민, 2008; 정경수, 2008).

9) 필자가 검토한 소논문 혹은 평문은 총 10편이다(유재희, 1999; 서보명, 2002; 황용연, 2002; 김형인, 2004; 정혁현, 2006; 김윤지, 2007; Mark Goodacre, 2007; 안신, 2010; 박종석, 2010; 차영선, 2010).

## 2. ‘예수-이야기’ 영화의 범주와 논쟁의 양상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영화에 관한 범주 구분은 성서문학 분류법에 따라 크게 ‘예수-이야기’ 영화와 ‘그리스도-유형(Christ-figure)’ 영화로 나뉜다(김윤지, 2007: 50).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굳어진 분류법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Tatum: 8). 그러나 이 분류법은 매우 간명하고 효과적이지만 세부적인 재분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방향상 ‘그리스도-유형’<sup>10)</sup> 영화를 논외로 두면, ‘예수-이야기’ 영화에 관한 W. 반즈 테이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영화 100년(Jesus at the Movie)』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온 ‘예수-이야기’ 영화를 공관적 방식과 대안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서 ‘공관적(harmony)<sup>11)</sup>이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일관된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을 자세히 보면, 상당부분 요한복음까지 그 맥락에 포함시킨다. 즉, 공관적 방식이란 ‘예수-이야기’를 4복음서에 입각해 총체적으로 ‘재현(representation)’한 영화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적(alternative)’이란 언명은, 복음서 내용의 수렴 정도가 선택적인 영화를 두고 붙여진 수식어다. 해석에 따라, ‘대안적’이란 표현 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기에 ‘선택적’이란 번역이 더 적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기초로 ‘예수-이야기’ 영화 중 선택적 방식의 영화를 정의하면, 복음서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되 드라마투르기(Dramaturgie)를 고려해 상상력으로 각색한 에피소드가 다수 포함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W. 반즈 테이텀의 구분은 약간의 수정 및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공관적 방식의 ‘예수-이야기’ 영화라는 명칭은 복음서 기반 ‘예수-이야기’ 영화로

10) 헐리(Neil P. Hurley)는 ‘그리스도-유형’ 영화를 ‘예수를 영화적으로 변모시킨 형태’로 언술하고, 이런 유형의 영화가 1982년의 시점에 이미 60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화들의 범주를 다시 ‘예수의 변모 영화’와 ‘그리스도 유형의 인물’ 영화로 재분류한다. 전자는 세속적 전통의 영화로 좀 더 인간적이거나 무신론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페르소나가 등장하고, 후자는 신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전형적인 메시아 의식, 신성, 그리고 부활 등 전통적인 그리스도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Barnes Tatum :352).

11) 엄밀한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를 일관된 관점으로 보는 의미에서의 ‘공관’은 ‘synoptic’이란 용어를 쓴다.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공관’, 혹은 ‘공관복음’이란 표현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경적으로 재현한 영화의 경우, 요한복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동의한다면, 다시 복음서 기반 ‘예수-이야기’ 영화라는 범주를 미시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축자영감설을 수용하는 듯 복음서의 글자 하나까지 충실하게 반영하려 한 영화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는 복음서의 내용을 따르되 성서의 메시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 해석을 가한 영화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영화에는 존 헤이먼(John Heyman)의 <예수(Jesus)>를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파졸리니(P. P. Pasolini)의 <마태복음(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1966)과 본고에서 다룬 <패션>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영화는 우선적으로 ‘복음서 재현 영화’라고 규정할 만하다. 한편 후자의 영화, 곧 복음서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선에서 부분적인 각색이 이뤄진 영화에는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의 <벤허(Ben-Hur)>(1959)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실존하던 시절, 예루살렘에 살던 주인공의 삶을 조명한다. 따라서 영화의 내용이 복음서의 정보에 기초하되, 그와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류의 영화는 ‘복음서 참조 영화’라고 언명할 수 있겠다.

한편 선택적 방식을 따르는 ‘예수-이야기’ 영화는 ‘복음서 변용 영화’와 ‘허구적 재창조 영화’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 변용 영화’는 복음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벗어나는 상상력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영화를 지칭한다. 영화에 따라서는 기독교적 진리를 위반하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전경화되곤 한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마틴 스코르세지(Martin Scorsese)의 <유혹>은 이 범주에 속한다. ‘허구적 재창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소재로 차용했을 뿐, 전혀 새로운 허구적 서사 속에서 내용 전반을 가공해낸 영화를 말한다. 최근 만들어진 영화로 예를 들면, 리 디마브레(Lee Demarbre)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뱀파이어 헌터(Jesus Christ Vampire Hunter)>(2001)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지금까지 시도한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새로운 범주 구분은, 해당 영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비평장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응과 행동을 묶어 보면, 앞에서 재설정된 범주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일단 ‘복음서 재현 영화’는 기독교계 평단의 지지를 받아 왔으며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운동, 단체 관람 운동을 이끌어내곤 했다. 〈패션〉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음서 참조 영화’는 작가의 상상적 개입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이 복음서의 메시지를 위반하지 않는 편이어서 부분적인 논쟁을 낳는 정도였다. 사회적 파장이 가장 광범위했던 영화들은 역시 ‘복음서 변용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영화는 외관상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작가 개인의 상상력과 신념에 상당부분 기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는 사건은 성서를 하나의 진리로 수용할 때에야 신념화된다. 따라서 성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의심되는 일련의 영화들은 소위 ‘신성모독’이라는 반응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혹〉에 대한 기독교계의 시선은 이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허구적 재창조 영화’는 국내 개봉작이 거의 없어<sup>12)</sup> 반응 결과를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면,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순 있지만 대개 오락적 속성이 강조된 일반 대중영화처럼 용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이야기’ 영화에 관한 기독교계의 변별적인 반응은, 사회적 논쟁 가능성을 이미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기독교계의 ‘예수-이야기’ 영화에 관한 대응은 한층 격한 사회적 논쟁을 낳곤 했다. 그 이유는 대중비평 시대를 열어 놓은 인터넷의 공간이 기독교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비판 여론까지 생산·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를테면, 최근 한국 기독교는 독선적인 교리와 무리한 국내외 선교방식,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윤리적 부정, 대형교회의 도덕적 문제 등

---

12) 이 범주의 영화는 유럽과 북미 혹은 제3세계 지역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으나 대개는 B급 영화나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 등으로 제작되곤 했다. 이를테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뱀파이어 헌터>나 <울트라그리스도!(Ultrachrist!)>(2003)는 저예산 B급 영화로 다소 황당한 스토리를 통해 오락적 재미를 부각시킨다. 대개 이런 영화들은 가벼운 논쟁의 대상이 될 순 있지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만한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13)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을 통해, 영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 전반이 사안에 따라 광범위하게 비난 받게 되었다. 관련 사이트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한 사이트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예컨대, ‘클럽 안티기독교’(http://cafe.daum.net/clubanti)는 1999년에, ‘안티기독교’(http://cafe.naver.com/antichristianity), ‘만기독교시민운동연합’(www.antichrist.or.kr)은 2003년에 개설되었다.

이 불거져서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해 왔다. 전체 성도 수의 지속적인 감소<sup>14)</sup>는 기독교가 처한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이야기’ 영화를 둘러싼 관습적 지지나 일방적 거부 운동이 더욱 심각한 반발을 불러 온 것이 사실이다. 대중의 문화향유 대상(영화)에 대한 접근 과정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시도의 경우 기독교 전반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도 할 수 있다.

<패션>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 전반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복음서 재현 영화’의 범주를 대표하는 2004년 개봉작이다. 한편, <유혹>은 기독교계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극렬한 개봉 반대 운동을 견뎌가며 제작 후 14년이 지난 2002년에 개봉한 ‘복음서 변용 영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영화에 대한 2000년대 기독교계의 비평장을 살펴보면서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겠다.

### 3. 기독교계 비평의 자기반성과 영화적 성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혹>은 신성모독 영화라는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1988년에 최초 개봉되지 못하고, 2002년에야 일반 관객에게 공개된다. 2002년에도 이 영화의 개봉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반항은 대단한 것이었다. 신성모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진영의 근거는 나름대로 신학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 그 중 가장 일관된 근거를 꼽아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로서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민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장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관한 비성경적인 설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에로스적 사랑이 표현된 장면이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가 막달라 마리아와 섹스를 한 후 가

14)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개신교인은 862만 명으로 1995년 이후 1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었다. 감소 추세는 전국 시군 단위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결과였다.(<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72>)



정을 꾸리는 장면, 그리고 다른 여인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도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내용은 표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저지하는 대목과 영화 전반에 걸쳐 가룟 유다가 긍정적인 인물로 전경화된 점도 저항감을 불러 일으켰다.

<유혹>에 대한 그 같은 불편함이 문맥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글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글들은 정당한 공론화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글 중 일부는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를 지닌다. 문제시 되는 글 중 적지 않은 수가 감정적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내용의 객관성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글에서는 영화 매체에 대한 정돈되지 못한 인식마저 드러난다. 그에 대한 논의를 먼저 약술하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개별 영화를 소재나 내용 차원에서 ‘기독교적/비기독교적’이란 수식어로 경계지어 두고 때론 ‘비기독교적=반기독교적’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내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공간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면, 그러한 시선을 도그마화하기 위해 강한 공격성을 분출하는 비전문 평자들의 글이 흔하게 발견된다.

비교적 긍정적이라 여겨지는 신호도 있다. 2000년대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이 형성해 온 ‘예수-이야기’ 영화에 관한 비평장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일부 글은 복음서에 대한 재현에의 요구를 과감히 외면한 영화까지 포용하면서 가치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용인하는 사유를 보여준다. 그들은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의 부정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유혹>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린 시선을 견지한다. 교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매체로서 영화를 대하면서 서사이면의 내재적 의미를 묵상하는 태도의 글들도 다수 눈에 띈다. 비평적 성향에 근거했을 때, 그들을 신중론자(유재희; 1999, 서보명, 2002; 정경수; 2008, 이신형, 2009: 95-131)와 옹호를 통한 자성론자(황용연, 2002; 이미향, 2010)<sup>15)</sup>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온건한 신학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신중론자의 글 중에서 서보명의 논의를 예로 들면, 그는 <유혹>을 경유하여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비평적 준거틀을 객관적으로 다듬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과 상영 반대 운동, 등급 부여 취소 촉구 성과와 같은 기독교계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글들을 일컫는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한 영화가 왜 잘못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도, 왜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를 분석하는 기준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복음서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영상의 언어와 해석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해 냈는지가 기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영화들을 먼저 영화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서의 한 표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서보명, 2002: 238).

위의 글은 <유혹>의 국내 개봉과 동시에 작성된 바, 인용부분만 보면 ‘복음서 재현 영화’만을 용인하는 일부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한 반대 의사가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예수-이야기’ 영화를 “성서의 한 표현”으로만 보는 행위와 “복음서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다소간 이의를 제기하며 <유혹>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강한 어조로 <유혹>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치적·비평적 응대를 비판한 기독교계 내부의 글들은 먼저 기독교계가 보이는 권위의식을 자성한다.<sup>16)</sup> 황용연의 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그는 ‘예수-이야기’ 영화, 특히 <유혹>에 대한 기독교계의 일방적 비난과 상영 저지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하며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대중의 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다음 글은 다소 과격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기독교는 자신과 관련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 주체’가 되는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리고 있다. 아니 ‘정치적 주체’가 되는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리는 ‘일상적 파시즘’이 한국 기독교의 존재 방식, 특히 <유혹> 상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기독교’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이다. 그러니 그러한 존재 방식은 “연약한 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면서도 사실은 그러한 ‘대응’을 위해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벌이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위선이 되어 버리고 만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일까(황용연, 2002: 365-366).

16) 이미향의 글(이미향, 2004: 55-56)을 예로 들면, 한국 기독교의 비평 관습이, 반성적 성찰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독교 비평은 새로운 비평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영화와 관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독교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종종 일반 비평계나 대중, 또는 언론의 도마에 오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표방하는 기독교 비평이 주로 공공윤리와 관련한 영화의 사회적 영향이나 기독교 가치를 전달하는 기독교 교육적, 선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혹〉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은 아니지만, 〈유혹〉에 대한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행보가 <다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2006)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서, 기독교인의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시한 정혁현의 글도 눈에 띈다. 그는 기독교적 영화읽기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성서 소재 영화에 관한 기독교계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유혹〉)의 개봉 때도 그러하였지만, 이번에 <다빈치 코드>의 개봉을 앞두고도 벌어진 기독교인들의 상영저지 움직임은 이와 같이 ‘영화를 모르면서 영화에 맞서는’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까? 기독교적인 영화보기 혹은 읽기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데, 이는 마치 기독교 신앙이 주어진 현실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유와 묵상의 결과이듯, ‘기독교적 영화읽기’ 역시 영화를 관람한 체험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중략) 영화는 결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세계를 확장시켜 보여주며,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선을 유도한다(정혁현, 259-260).

지금까지 일부 사례를 대표적으로 인용하였지만, 〈유혹〉에 관한 기독교계 비평장 전반을 보더라도, 신중론과 옹호를 통한 자성론이 비등해진 것이 확인된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명시적·암시적으로 복음서를 그대로 재현한 영화에 한해 ‘기독교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이던 행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복음서 재현 영화’에 한해 일방적인 찬사를 보이는 비평이라면, 그것은 영화감독을 비롯한 연출진의 미학적 자의식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예수-이야기’ 영화라면, 축자영감에 대한 신념을 영상으로 확장·적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성서의 내용이나 자구(字句)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벽하게 구축된 것이기에 복음서를 대상 텍스트로 삼은 영화라면 기독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치밀한 ‘재현’만을 용납한다는 식이다.<sup>17)</sup> 축자영감을 성서영감론<sup>18)</sup>에 있어서 유일한

17)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조사가 있다. 기독교계 대표 월간지 중 하나인 『빛과 소금』에서 「영화사역자 4인이 뽑은 예수님 영화 Best 10」를 발표하였는데, 그들 모두의 추천과 지지를 받은 영화 두 편은 <나사렛 예수(Jesus of Nazareth)>(1977)와 <패션>이다. 그런데 이들 영화는 <예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복음서 재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송주화 목사는 <예수>를 1위로, 황영미 교수, 하정원 목사는 <패션>을 1위로 꼽았다(진은경, 2008: 96-97).

18) 신학적으로 ‘축자영감’ 이외에도 ‘사상영감(Sachinspiration)’, ‘인격적 영감(Personalinspiration)’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양신혜, 2009: 183-186).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텍스트로서 성서를 객관적으로 영상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문자를 영상으로 옮기는 매체 전이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복음서 시대의 사회상과 복장, 건축 등을 객관적으로 구현하려는 욕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복음서 변용 영화’ <유혹>을 두고도 선택적 지지와 포용의 시선을 보이는 비평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2000년대 기독교계 비평장의 새로운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를 전하는 영상 도구로 ‘예수-이야기’ 영화를 협소하게 인식하는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들은 현실의 층위에서 훨씬 정치적·실천적 힘을 발휘한다. 최성수의 글은 비교적 차분한 톤이지만, <유혹>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감 혹은 거부감의 근거를 잘 보여준다. 그는 <몬트리올 예수(Jesus Of Montreal)>(1989), <유혹>, <다빈치 코드>를 동일한 계열로 묶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독교의 진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기독교를 모르는 관객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영화의 힘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영화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최성수, 2007: 17)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실”이란 곧 성경에 명문화된 내용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복음서의 문자적 진술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예수-이야기’ 영화가 아니라면, 즉물적인 영상의 힘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패션>에 관한 기독교계 비평장은 <유혹>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양상으로 형성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 대한 해석은 유사하게 귀결된다. 이를테면, 현실적 층위에서 <패션>은 가톨릭과 일부 기독교계의 전면적인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단체 관람 운동을 이끌어낸다.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 중 일부도 <패션>에 대한 텍스트 비평을 행하는 자리에서 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같은 평가는 ‘재현’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습적 열망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패션>은 4복음서에 기초하여 영상의 비주어를 가다듬되 명문화되지 않은 정보와 내용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준하는 전승(구전, 외경, 계시)에 충실했다고 한다(차영선, 2010: 13). 이 정보들은 영화 개봉 이전부터 제작사 측에서 흘러나온, 혹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비기독교인에게도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 가톨릭 성도들과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복음서를 영상으로 목상하는 기회라는 기대심리를 낳는다. <패션> 관람이 한번쯤 체험할만한 색다른 사경회(査經會)처럼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계 비평장 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견해 차이가 발견된다. 일부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가장 실증적인 ‘복음서 재현 영화’로 지목한 <패션>을 두고도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는 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음서 재현 영화’ 중 상당수가 그러하였거니와 <패션>도 미국 등지에서 이미 반유대주의, 엄밀히 말해 반셈주의 논쟁을 일으켰다(Barnes Tatum, 2004: 31). 국내 평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논지로 <패션>을 비판한 글이 여럿 눈에 띈다. 그런데 국내 기독교계 전문 평자들의 글 속엔 <패션>의 재현이 과연 복음적인 것인가의 문제와 재현의 과정이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먼저 재현이 복음적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이신형의 글은 중요한 논점을 시사한다. 그는 <유혹>을 비평할 때에도 재현의 성패 여부로 영화 매체의 미적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패션>을 두고서는, 폭력의 미학을 구현하는 영상 안에서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 영화가 가톨릭의 전승에 입각해 재현됨으로써 복음서를 곡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본다(2009: 111-131).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마리아와 인간(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중있게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과 대결하는 주체가 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영화의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 사탄에게 지불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그의 비평은 <패션>이 복음서를 재현한 영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듯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가톨릭과 변별되는 기독교의 교리를 성찰하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

이러한 주장은 정경수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패션>의 원전이 성경이 아니라 에머리히(C. Emmerich) 수녀의 환상록이라고 강변한다(정경수, 2008: 59). 이를 통해, 그는 성서 속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이야기’ 영화가 복음서에 대한 재현, 곧 신학적 맥락에서의 완결성만을 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이야기’ 영화를 기획하려 한다면, 예술적·역사적·문학적·신학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패션>이 복음서 재현

에 실패한 영화라는 점을 전제하고, 온당한 ‘복음서 재현 영화’라면, 성서 이외의 메타 텍스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 면에서 그의 주장은 복음서를 재현하라는 일반적 요구를 재론한 듯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지를 넘어선다. 둘째로, <패션>이 복음서를 재현하는 과정이 정당한가의 문제를 묻는 비평문들이 존재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패션>의 연출 영상에 표출된 가학성과 잔혹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대중연예지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ntertainment Weekly)』는 2006년 6월 <패션>을 ‘역대 최고의 논란 영화 25편’(25 Most Controversial Movies Ever) 중 1위에 올렸다.<sup>19)</sup> 그 이유 중 하나는 영화 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해진 고문과 학대가 너무 잔인해서였다. 그 저의를 추적해서 비판적 논지를 펼치는 글을 보면, 기독교계 안팎의 전문 평자들의 논지가 대개 일치하였다. 먼저 김진은 <패션>의 잔혹한 묘사와 사실성에의 집착이 오히려 진실을 유폐시키며 성서를 왜곡한다고 말한다. <패션>의 재현이 상업적 성공을 목적으로 성서를 교묘히 왜곡하는 작업이자 감독 멜 김슨의 편협한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패션>에 관한 비판적 평가를 마무리한다.

이 영화의 흥행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은 멜 김슨이 은전 삼십냥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와 오버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이 영화를 제작하게 한 멜 김슨의 기독교 우월주의와 보수주의에 근거한 신앙의 내용은 멜 김슨 개인의 신앙이기 이전에 오늘날 전통과 조직에 갇혀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 기독교의 신앙이 전형이다. 그러기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가 왜곡하고 있는 예수 이해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20)</sup>

그 외에도 김용수는 라캉(J. Lacan)의 사드(M. de Sade)에 관한 고찰을 경유하여 <패션>의 고문과 학대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는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파괴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본다. 그는 이 문제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감옥에서 행해진 미군의 포로 학대와 중첩시켜 고찰하면서 ‘도착(perversion)’의 의미를 탐구한다(김용수, 2005). 비슷한 맥락에서 남재일은 <패션>이

19) EW.com(<http://www.ew.com/ew/article/0,,1202224,00.html>)

20) 이 글은 『씨네21』에 실린 글(김진, 2004)로 당시 김진은 종교신학 박사이자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진보 신학자였다.

반유대주의를 통해 기독교 근본주의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리고는 〈패션〉이 관객을 상영시간 동안 잔인한 사디스트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결국 죄책감을 전유한 마조히스트, 곧 일차원적인 종교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식의 논지를 보여 준다(남재일, 2004).

이처럼 가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전반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낸 〈패션〉은 ‘예수-이야기’ 영화사상 최대의 흥행작이면서도 일정한 내부적 비판을 받아왔다. 영화 개봉 시점인 2004년을 중심으로 비평장을 검토한 결과, 많은 평자들이 여전히 복음서 재현의 객관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패션〉이 실증적이어서 좋은 영화라는 단편적인 논지를 펼치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앞에서 예거한대로, 그만큼 많은 평자들이 ‘복음서 재현 영화’로서 〈패션〉을 비판적 입장에서 재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화의 재현이 과연 복음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성서 텍스트에 간혀 행해지는 기계적인 재현을 회의하기도 하고, 가톨릭과 구별되는 복음주의적 관점을 인식하기도 하며 재현 과정의 윤리성을 반성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논의 역시 건전한 기독교 영화와 좋은 ‘예수-이야기’ 영화의 범주를 복음서 재현의 성공 여부에서 찾는 시선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 문제는 서서히 핵심에서 비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션〉의 복음서 수용 결과를 논하면서도 신학적 관점을 떠나 예술적·역사적·문학적 차원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글들은 기독교계가 용인하던 ‘예수-이야기’ 영화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문과 연관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학대와 폭력체험을 미학적·윤리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글들 속에는 재현의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수용론적 효과와 이미지와 서사 배면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포용한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개봉한 〈유혹〉과 〈패션〉에 대한 기독교계 비평장은 영화에 대한 현실 여론과 상관없이 엄정성과 개별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예수-이야기’ 영화에 관한 현실 여론은 기독교계 유력 단체와 일부 대형 교회와

---

21) 이를테면, 차영선은 학술논문에서 〈패션〉의 복음서 재현이 완벽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수사로 찬사를 보낸다. “전 세계의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유례없는 이색 체험”, “21세기 문화 콘텐츠 시대의 커다란 센세이션”, “인류를 향한 함축적 웅변”,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동안 무수히 만들어졌던 영화의 틀을 과감히 깨는”(차영선, 2010) 등의 표현은 그 예가 된다.

목회자들이 주도하였고, 그들은 법적 대응과 단체 행동을 불사하면서 ‘예수-이야기’ 영화를 포함하여 기독교 영화의 내용을 사실상 규율하였다. 그러나 학술논문과 공신력있는 여러 저널들에 실린 평문들을 종합하면, 기독교계 전문 비평은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복음서 재현에 대한 의무감을 서서히 극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이자 산업으로서 영화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예수-이야기’ 영화를 통해 기독교계 안팎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비평적 안목도 엿보인다.

조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이야기’ 영화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 대한 영화적 해석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더욱 넓혀진 기독교계 평자들의 해석적 층위를 검토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인성(人性)에 대한 다른 평가들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엔 지면이 부족하고,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안이기도 하여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기로 하겠다.

#### 4. 결론: 기독교 영화에 대한 전망과 대안

오늘날 기독교 영화는 교회 안팎의 요구에 비해 변화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성서 재현에의 강박이 소재와 내용의 폭을 좁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축자영감의 영화적 적용을 강제하는 듯한 태도나 영화를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기독교 영화의 범주를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예수-이야기’ 영화를 포함한 기독교 영화가 비기독교인들과의 대화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 때, 영화의 복음적 효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정혁현도 그의 글에서 비슷한 경향을 인지한 바 있지만, 영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정혁현, 2002: 258-259). 첫째, 거룩한 교회 문화와 세속적인 교회 바깥의 문화를 구별하여 조망하면서 영화를 극히 경계하는 부류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이분법적 신앙관은 영화를 외면하거나 적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도그마가 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로, 교회가 추천하는 기독교적 영화에 한해 관심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영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보수성은 기독교 영화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성서의 재현 여부에 비중을 두는 기존의 관습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영화는 도구적으로만 인식하는 부류다. 이들의 영화에 대한 반응은 영화의 소재와 내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기초해 ‘관람 운동/관람 거부 및 상영 저지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신앙적 독선 혹은 교리적 도그마에 빠지기 쉬우며, 영화를 통해 형성 가능한 비기독교인과의 공론의 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넷째, 영화는 어차피 오락적 향유의 대상이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자의식을 투영하지 않고 영화를 그저 즐기며 소비하는 부류다. 이들은 영화 이외의 문화콘텐츠도 매우 자유롭게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이분법적 틀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인으로서 자의식을 투영하여 모든 영화를 영화 자체의 내재적 의미와 상관없이 소화하는 태도다. 이 부류가 영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과 소통을 시도한다면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오만한 기독교의 이미지를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2000년대 〈유혹〉과 〈패션〉을 대상으로 형성된 기독교계 비평장의 다양한 국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영화에 대한 태도가 점차 다채롭게 분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다. 자칫 호오판단에 입각한 극단적 비평, 대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 비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수-이야기’ 영화에 대한 평가도 포용의 시선을 내재해 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적극적인 반대(〈유혹〉)나 우호적인 찬사(〈패션〉)로 어느 정도 양분화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계 전문 비평가 집단의 분발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 현 상황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의 토론을 이끌어내는 글, 비평적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스민 글들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본고는 2000년대 개봉한 두 편의 ‘예수-이야기’ 영화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두 영화에 국한해 보더라도 비평장 안에 아직 다루지 못한 다른 논점들이 남겨져 있다. 향후 기독교 영화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내부적 성찰을 꾀하는 논의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미학적·윤리적·교훈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남기는 기독교 문화콘텐츠 제작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Gibson, Mel (2004).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 Scorsese, Martin (1988). <예수의 마지막 유혹>.
- 김용수 (2005).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에 나타난 고문의 논리와 도착의 시선”. 『비평과 이론』 10(1). 155-171.
- 김윤지 (2007). “예수영화의 원형과 그 흐름”. 『현대영화연구』 3. 49-76.
- 김진 (2004). “성서를 모르거나, 영화를 모르거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씨네 21』 448.
- 김형인 (2004). “‘피’ 한번 징하고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씨네21』 448.
- 박종석 (2010). “기독교 교육과 구원: 구원의 유인책으로서의 예수 영화”. 『성경과 신학』 55. 165-193.
- 서보명 (2002). “영화 속의 예수”. 『기독교사상』 517. 233-239.
- 심영섭 (2010). “대중비평 시대의 등장, 그리고 비평가와 대중의 거리”. 『영화평론』 23.
- 안신 (2010). “영화의 상상력과 다문화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2. 65-83.
- 양신혜, (2009). “칼뱅, 축자영감설의 창시자인가?”. 『현상과인식』 33(3). 181-201.
- 유재희, (1999).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개봉에 있어서”. 『기독교사상』 43(1).
- 이미향 (2004). “영화매체의 문화선교적 가치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신형 (2009). 『영화, 신학에 말을 걸다』. 인천: 올리브북스.
- 전은경 (2008). “스크린으로 만나니 좋지 안니한가”. 『빛과 소금』 490.
- 정경수 (2003). “영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적 영화의 모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경수 (2008). “영화 속의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혁현 (2006). “기독교와 영화, 실패한 관계를 치유하자”. 『기독교사상』 570. 254-261.
- 차영선 (2010).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재현된 ‘역사적 진실’”. 『인문콘텐츠』 19. 237-254.
- 최성수 (2007). 『영화와 기독교』. 대전: 글누리, 2007.
- 황용연 (2002). “한국 기독교는 없다, 고로 존재한다: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 상영 논란”. 『당대비평』 18. 360-366.
- 황하민 (2008). 『기독교 영화와 기독교적 영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Goodacre, Mark (2007). 조석민 역. “공관복음의 예수와 영화 속의 그리스도”. 『신약연구』 6(2). 447-466.
- Barnes, Tatum W (1997). *Jesus at the Movie: A guide to the first hundred years*. 김형규 외 역(2004). 『예수영화 100년』. 서울: 백림사.
- EW.com (<http://www.ew.com/ew/article/0,,1202224,00.html>)
- 클럽 안티 기독교(<http://cafe.daum.net/clubanti>)
- 안티기독교 (<http://cafe.naver.com/antichristianity>)
-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www.antichrist.or.kr](http://www.antichrist.or.kr))
-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72>)

## ABSTRACT

### A Study on Christian Sphere of Criticism appeared in *The Passion of the Christ* and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 Focused on the Discussions about Representation of Gospels

Soong-Beum Ahn(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phere of criticism of Christian critics surrounding two ‘Jesus-story’ films domestically released in 2000s. Among the films under discussion, *The Passion of the Christ* is ‘gospel represented film’ drawing supports from leading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any churches, and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is ‘gospel transfigured film’ suffered in various kinds of boycott. What is remarkable, regardless of assessment somewhat unilateral performed about two films in real level, is that many Christian professional critics were seeking the forum of publicization that can embrace various views. They were suggesting new ways of reading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film media and theological insight to non-Christians, or Christians who understands films as a tool. The articles showing eyes of introspection about the church's insular view watching ‘Jesus-story’ film and extreme practice stood out especially. Many articles were agreeing that ‘Jesus-story’ film as a cultural text need not to be an extension of the Bible to films, or an empirical dramatization of gospel's contents. There were also an opinion to recognize aesthetic autonomy of film media itself and should approach in multi-layered ways to ‘Jesus-story’ film in artistic-historic-literary levels.

Fundamentalistic attitude that appears to be enforcing cinematic application of verbal inspiration or posture only trying to use films instrumentally will reduce the category of Christian films in long term. Also when Christian films including ‘Jesus-story’ films can be discussed with non-Christians in conversation forum, evangelical use of

the film will increasingly expand. In the period of 2000s, Christian criticism of 'Jesus-story' films seems to be slowly sublating the pressure of representing gospels. For renovating the role and function of Christian films, the increasing of space for criticism where critics having various differences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religious world seeking alternatives is expected.

Key Words: 'Jesus-story' film, gospel represented film, gospel transfigured film, verbal inspiration, the sphere of criticism